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o.kr 080)320-7700

16강을 넘어 8강 … 꿈은 가슴에 ★을 새긴다

〈우승〉

기성용

브라질 월드컵 조 편성

A조	B조	C조	D조	E조	F조	G조	H조
1 브라질	스페인	콜롬비아	우루과이	스위스	아르헨티나	독일	벨기에
2 크로아티아	네덜란드	그리스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포르투갈	알제리
3 멕시코	칠레	코트디부아르	잉글랜드	프랑스	이란	가나	러시아
4 카메룬	호주	일본	이탈리아	온두라스	나이지리아	미국	한국

H조 4개 팀 비교

	한국	벨기에	러시아	알제리
FIFA 랭킹	61위	11위	22위	26위
감독	홍명보	마르크 빌모츠 (벨기에)	파비오 카펠로 (이탈리아)	바히드 할릴호지치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월드컵 예선 성적	아시아 A조 2위 (4승2무2패)	유럽 A조 1위 (8승2무)	유럽 F조 1위 (7승1무2패)	아프리카 최종 예선 부르키나파소에 승리
주요 선수	손흥민(레버쿠젠) 이청용(볼턴) 기성용(선덜랜드)	아자르(첼시) 콤파니(맨시티) 펠라이니(맨유)	케르자코프(제니트) 시로코프(크라노스다르) 코코린(모스크바)	페굴리(발렌시아) 예브다(우디네세) 슬리마니(리스본)

벨기에 루카쿠

팀워크 좋은 러시아
아프리카 복병 알제리
최강 전력의 벨기에
H조, 예측불허 혼전 예고

러시아 시로코프

한국 최상의 시나리오는
알제리 반드시 잡고
러시아·벨기에와 비기면
1승 2무 '승점 5'로 16강

처음엔 꿈으로 시작됐다. 한 사람이 꾸면 꿈이지만 여러 사람이 꾸면 현실이 된다. 세계 70억 인구의 꿈이 하나가 되는 월드컵. 6월13일 브라질서 지구상 최고의 축구 축제가 시작된다. 32개국 352명이 펼치는 잔치에 한국은 당당히 초대됐다.

첫 휘슬이 울린 후 FIFA컵이 들어 올려질 때까지 선수들이 펼칠 모든 태클에는 열정이 있고, 모든 패스에는 믿음이 있다. 모든 찬스에는 희망이 있고, 모든 골에는 기쁨이 넘친다.

멈추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선수도. 응원하는 관중도….

월드컵 도전의 역사

한국은 8회 연속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는 아시아의 절대 강자. 1954년 스위스월드컵 본선까지 합치면 9회 진출국이다. 8회 연속 본선 진출은 국제축구연맹(FIFA) 209개 가맹국 중 6곳 뿐이다. 전 대회 출전국은 삼바축구 브라질이 유일하다.

하지만 1954년 이후 한국의 월드컵 본선 도전기는 영광과 굴욕의 60년이었다.

1954년 스위스월드컵은 잔인했다. 대회 우승팀인 서독과 준우승팀 헝가리 그리고 터키와 함께 죽음의 조에 편성된 한국은 미군 군용기 등을 타고 수 십 시간을 달려 첫 경기를 치렀다. 제대로 쉬지도 못했다.

'왼발의 저승사자' 푸스카스가 이끄는 헝가리를 만나 선수들은 운동장에서 뒹굴며 육탄방어를 펼쳤지만, 무려 9골을 내주며 0-9 대패하고 말았다. 골키퍼 홍덕영은 "푸스카스가 찬 공은 마치 대포알 같아서 막으면 갈비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느낄 정도였다"고 회고했다.

FIFA는 한 해 동안 가장 아름다운 골은 넣은 선수에게 푸스카스상을 주고 있는데, 2013년 푸스카스상은 즐라탄 이브라히모비치의 30m짜리 오버헤드킥이었다. 즐라탄은 이 골의 비결을 어린시절에 배운 태권도 덕분이라고 말했다.

2차전에서도 터키에 0-7로 참패를 당한 한국은 16강 탈락이 확정돼 서독과의 경기를 치르지도 못했다.

한국은 1986년 멕시코월드컵에서 32년만에 본선에 진출했다. 조별리그에서 맞붙은 상대는 아르헨티나·불가리아·이탈리아. 또 다시 죽음의 조였다.

1차전에서 아르헨티나에 1-3으로 완패했지만 박창선이 선물한 월드컵본선 첫 골을 맛봤다. 2차전에서 불가리아와 1-1로 비겨 첫 승점도 획득했다. 우승후보 이탈리아와의 3차전도 선전했지만 2-3으로 분패해 1무 2패로 16강 진출에 실패했다.

1990년 이탈리아월드컵에서는 벨기에에 0-2, 스페인에 1-3, 우루과이에 0-1의 참담한 3패를 당하며, 세계의 벽을 실감했다.

1994년 미국월드컵에서 2무 1패로 16강에 탈락한 것은 너무나 아까웠다.

1차전에서 홍명보와 서정원의 골로 강호 스페인과 2-2로 비겼고, 2차전에서도 볼리비아를 거칠게 몰아붙였지만 0-0으로 비기고 말았다. 독일과의 마지막 3차전에서는 전반에 세 골을 얻어맞고 휘청거렸다. 후반에 황선홍과 홍명보가 연속골을 터뜨려 2-3으로 추격하고 막판에 독일 문전을 계속 위협했지만, 끝내 추가골을 얻지 못해 아쉽게 예선 탈락했다.

1994년 프랑스월드컵에서는 멕시코에 1-3, 히딩크 감독이 이끄는 네덜란드에 0-5의 치욕을 맛봤다. 차범근 감독이 현지에서 경질되고 충격 속에 치러진 벨기에와의 3차전에서 눈물겨운 분투 끝에 1-1로 비겨 전패는 면했다.

알제리 페굴리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는 월드컵 첫 승을 넘어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4강 신화를 썼다.

1차전 폴란드에 2-0 승, 2차전 미국과 1-1 무승부, 3차전 포르투갈에 1-0 승리로 꿈에 그리던 16강 진출에 성공했다. 16강전에서는 안정환의 골든골로 이탈리아를 제압하고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치러진 8강전에서 '무적함대' 스페인마저 승부차기로 꺾었다.

2006년 독일월드컵은 국민들의 폭발적인 응원 속에 토고를 1-0으로 꺾고 강호 프랑스와 0-0 무승부를 기록, 승점 4점을 확보하고도 스위스에 0-2로 패해 조별리그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2010년 남아공월드컵에서다. 한국은 1차전에서 복병 그리스에 2-0 호쾌한 승리를 거두고 메시를 앞세운 아르헨티나에 1-4로 패했지만 3차전에서 아프리카의 강호 나이지리아와 2-2로 비겨 16강에 진출했다. 하지만 우루과이와의 16강전에서 이청용이 동점골을 넣으며 분전했지만 수아레스에 두 골을 허용하며 1-2로 아깝게 탈락했다.

한국이 상대할 H조 전력

공은 둥글다. 둥근 공이 어디로 굴러갈지 알 수 없듯이 실력차가 크지 않은 팀들 간의 경기 결과는 예측하기 힘들다. 브라질월드컵에서 H조에 편성된 한국은 벨기에·러시아·알제리와 조별리그를 치른다. 절대강자의 넘지 못할 벽도, 만만하게 볼 쉬운 상대도 없는 혼전이 예상된다.

▲러시아=가장 먼저 상대할 팀은 러시아.(6월18일 오전 7시 아레나 판타날)

러시아 팀에서 주목할 인물은 선수가 아닌 감독 카펠로. 레알 마드리드와 AC밀란 유벤투스 등 빅 클럽을 거치면서 '우승 제조기'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명장이다. 카펠로는 100% 러시아 국내파로 이루어진 세대교체를 통해 유럽 예선에서 7승1무2패를 거두며 포르투갈을 제치고 조 1위로 본선 진출을 확정 지었다.

경계해야 할 선수 1호는 미드필더 시로코프. 득점력과 패싱력을 모두 갖춘 선수다. 시로코프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공격패턴이 결정될 만큼 러시아 공격의 사령관 역할을 하고 있다. 간판 골잡이 원톱 케르자코프와 신예 코코린의 슈팅도 매섭다.

하지만 러시아는 공격의 날카로움보다 수비의 견고함이 더 강점이다. 이그나셰비치와 베레주츠키, 콤바로프, 코즐로프로 형성된 포백은 월드컵 유럽 예선에서 10경기 20골 5실점을 기록할 만큼 '짠물 수비'를 펼쳤다.

많은 강점을 갖고 있는 러시아지만 월드컵 등 메이저대회에서는 좋은 성적을 낸 기억이 없다. 월드컵도 10년 만의 본선 진출이다. 스쿼드가 유럽 빅리그 경험이 없는 국내파로만 구성돼 색다른 축구 스타일의 팀을 만나면 고전할 가능성도 크다는 분석이 위안거리.

▲알제리=2차전에서 맞붙는 알제리는 한국이 반드시 잡아야 할 상대다.(6월23일 오전 1시 베이라-리우) '아프리카의 복병' 알제리의 에이스는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발렌시아에서 활약하고 있는 페굴리. 프랑스의 '아트사커'를 지휘한 지단과 비슷한 플레이로 '제2의 지단'이라 불리며 측면과 중앙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전천후 미드필더다. 패스·돌파·슈팅 3박자를 갖춘 선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손흥민

아프리카 지역 예선에서 팀 내 최다인 5골을 몰아친 스트라이커 슬리마니, 정교한 패싱력을 자랑하는 미드필더 예브다, 프랑스리그에서 뛰고 있는 카디르와 굴람 등 발재간이 좋고 스피드도 뛰어난 공격진의 화력이 위협적이다.

하지만 알제리의 약점은 역시 수비. 선수 개개인의 기량과 능력은 뛰어나지만 함께 뛴 횟수가 적다보니 조직력이 아직 탄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프리카 예선 8경기에서 7실점을 했다.

월드컵을 50여일 앞두고 알제리 축구계는 지금 자중지란 상태다. 알제리의 감독과 축구협회 회장 사이에 생긴 갈등의 골은 이미 몇 달째 이어져 대표 팀의 경기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벨기에=3차전은 원조 붉은악마와의 경기다.(6월27일 오전 5시 코린치안스) 벨기에의 역대 최고 성적은 1986년 멕시코 대회 4위다. 하지만 이번엔 당당히 우승후보 중 하나로 거론된다.

쿠르투와, 콤파니, 반 바이텐, 뎀벨레, 펠라이니, 벤테케, 아자르, 루카쿠, 미랄라스 등 유럽 빅리그를 주름잡는 선수들만으로도 베스트 11은 차고 넘친다. 한마디로 '어마무시'한 스쿼드다.

2006년 독일월드컵 예선 탈락 이후 유소년 육성에 나서 길러진 아자르(첼시), 펠라이니(맨유) 등 이른바 '황금세대'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가장 주목받는 선수는 에당 아자르. 맨유 퍼거슨 감독의 러브콜을 뿌리치고 첼시에 입단해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는 아자르는 최근 스카우트 파동이 일자 이적료가 무려 3억 파운드(5249억원. 2009년 맨유서 레알로 이적한 호날두의 이적료는 1400억원)까지 거론되고 있다. 공격의 핵 벤테케가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월드컵 참가가 불가능해졌지만, 머리와 발 등 온 몸이 무기인 '최강 피지컬'의 루카쿠, 에버턴의 보물 미랄라스 등 대체자가 많다.

자신감 넘치는 벨기에지만 최근 평가전 성적은 정 반대다. 콜럼비아에 0-2로 졌고 일본과의 대결에서는 최정예 멤버를 내고도 2-3 덜미를 잡혔다. 3월에는 코트디부아르와 2-2로 비겼다.

승점 '5'를 확보하라

지난해 12월 브라질월드컵 본선 조 추첨 직후 여론조사전문기관 '갤럽'이 전국 19세 이상 남녀 90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1%가 16강 진출이 가능하다고 예상했다. 8강 이상의 성적을 내다본 응답자도 26%나 됐다. 국민의 기대치가 많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미국 스포츠채널 ESPN이 전망한 한국의 16강 진출 확률은 36.7%였다.

조별리그에서 16강에 오르는 데 필요한 승점은 얼마일까.

역대 대회 결과를 보면 '4점은 위험, 5점은 안심'이다. 결국 한국이 브라질 월드컵에서 16강에 안전하게 진출하려면 최소 1승2무 이상의 성적을 거둬야 한다. 알제리를 반드시 꺾고 벨기에와 러시아를 상대로 승점 2점 이상을 챙겨야 한다는 결론이다.

/유제관기자 jkyou@kwangju.co.kr